

함평군, 축산 보조사료용 미생물 공급



함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향만)가 오는 7월부터 지역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보조사료용

미생물을 무료 공급한다. 26일 센터에 따르면, 군은 올 연말까지 가축 보조사료용 유용미생물

농업기술센터, 연말까지 유용미생물 23톤 생산 내달부터 지역 가축사육농가 대상 무료 공급

물을 총 23톤 생산한다. 현재 센터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333㎡)을 통해 광합성균, 약취저감균 등 총 6종의 유용미생물을 매주 5톤 가량 생산·공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바실러스 등 가축 보조사료로 쓰이는 총 3종의 축산유용미생물도 생산을 시작해 농가 신청에 따라 50리터 단위로 포장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수량은 균종별로 농가당 최대 10리터까지이며,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령일 일주일 전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61-320-2488)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에 실제 급여할 때는 가축종별 기준 급여량(0.6ml~30ml)과 유통기한(냉장보관 시 제조일로부터 14일)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급여 후 최소 2~3개월간 가축의 적응상태를 세밀히 관찰하면서 부작용 현상 발생 시 즉시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흑산도에 '셀프 코인 빨래방' 개소 흑산공항 건설 사업 연계 주민소득지원 사업 일환

목포에서 92km 떨어진 흑산도에 신안군 최초로 신안군관광협의회(흑산지회)에서 운영하는 '천사섬 셀프 코인 빨래방(신안1호점)'을 지난 24일 오픈하였다. 신안군에서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과 연계한 주민소득지원 사업 일환으로 흑산도와 흥도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침구류와 베게, 수건 등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흑산권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번에 개소한 '코인 빨래방'은 흑산관광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누구든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욕실에서 운영하는 빨래방 이용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30kg 기준) 세탁 3,500원, 건조 4,000원의 이용요금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70분이면 완벽하게 세탁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협의회에서는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차상위)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코인 빨래방'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관광활성화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광군, '모시잎 삶은 물' 벼·고추에 효과적

벼 5% · 고추 7% 증수

영광군은 모시잎송편의 원료인 모시잎을 삶고 배출되는 가공수를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영광군 모시잎 재배면적은 70ha 이상으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5회 이내로 수확되며 매년 1,200톤 정도의 모시잎이 생산되고 가공수는 약 2만5천톤 가량 발생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매년 하절기에 발생하는 모시잎 삶은 물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에 실증시험을 수행했다. 먼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모시잎 삶은 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량의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을 함유하고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실증시험은 가공수를 사용함에 따른 작물의 피해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벼 재배 실증은 모시잎가공수를 단보당 5톤, 단보당 10톤씩 출수기 전후로 2회 살포하였다. 처리 후 병해충 발생 정도, 생리장애 여부와 수확량을 비교해 본 결과, 생리장애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량은 10톤 시용구에서 5%이상 증가했다. 고추 재배 실증은 가공수 원액,

모시잎가공수+고초균 100배, 모시잎가공수+고초균 200배 구간으로 나눠 6월부터 매주 1회 처리했다. 그 결과 모시잎가공수+고초균 100배 처리구에서 작과수, 과중량이 증가하여 일반물을 줄 때보다 7% 이상 증수되어 모시잎 가공수를 벼, 고추에 활용할 경우 작물에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상에 따라 시험성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지속적으로 실증시험을 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군 공항 결사반대' 주민강사 9명 홍보활동 시작

무안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6월부터 주민주도형 주민강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항심이 풍부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에 앞장서는 주민 9명이 각 읍면을 대표하여 지난 2월 주민강사로 위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홍보의 어려움으로 현장활동을 자제해왔다. 이에 그동안 군은 주민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에 집중해왔으며, 지난 10일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개방됨에 따라 주민강사들이 마을마다 찾아가



니며 군 공항이 무안에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민강사들은 동호회 활동, 지인들과의 식사 등 개인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군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을 지니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를 향해 첫발을 뗐다. 시는 25일 14시 시청 상황실에서 용역수행기관 및 관광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목포는 금년 1월 정부의 지역관광도시 공모에서 전국 4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0억원(국비 500억, 지방비 500억)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5일 선제적으로 관광거점

도시 선정 기념식을 개최한 목포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여건 및 관광시장 분석, 관광거점도시 기본구상, 세부 사업계획, 사업집행·운영계획, 성과관리 계획 등 실행력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은 오는 8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어 정부 심의와 조정을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신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영암군은 지난 24일 전통평 영암군수를 비롯해 유나중 영암군의 회 부의장, 도의원, 신북면장, 사회단체장 및 군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신북면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였다.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52억원으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호산골 문화센터, 메타세콰이어길 정비, 간판거리 조성, 주차장·쉼터 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다.



호산골문화센터(건물관리실, 주민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낙후된 주민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메타세콰이어길 및 주차장·쉼터정비를 통해 터미널 인근의 복잡한 주차난과 학생 및 주민의 보행안전을 개선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확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